

그리스도의 고난의 교통을 알고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룸

10/9 월

빌 3:10

10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알고,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

딤후 2:11

11 이 말씀은 믿을 만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고,

롬 8:14-18, 23-25

14 왜냐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15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노예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들의 자격의 영을 받았습시다. 이 영 안에서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고 외칩니다.

16 그 영께서 직접 우리의 영광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17 자녀들이라면 또한 상속자들, 곧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들입니다. 만일 참으로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18 나는 현재의 고난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23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영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 자신들도 속으로 탄식하며 아들의 자격,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24 왜냐하면 우리가 소망을 두고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는 것을 누가 소망하겠습니까?

25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한다면, 인내하면서 간절히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10/10 화

골 1:24

24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받는 나의 고난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웁니다.

요 12:24

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요 10:11, 15, 17-18

11 나는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지만,

15 이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도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립니다.

17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기 때문입니다.

18 나에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 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내가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목숨을 버릴 권위도 있고, 다시 얻을 권위도 있습니다. 이 명령은 내가 나의 아버지께 받은 것입니다.”

요 12: 12:23-26

23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때가 왔습니다.

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25 자기 혼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혼생명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혼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혼생명을 보존할 것입니다.

26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십시오. 내가 있는 그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10/11 수

고후 3:18

18 그러나 우리 모두는 너울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이것은 주 영에게서 비롯됩니다.

고후 4:10, 7-9, 11-12, 15-18

10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을 우리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7 그러나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 속에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탁월한 능력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8 우리는 사방에서 압박을 받아도 짓눌리지 않으며, 나갈 길을 찾을 수 없어도 나갈 길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며,

9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맞아 쓰러져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11 이것은 살아 있는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으로써,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12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생명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합니다.

15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더 많은 사람을 통하여 풍성해진 은혜로 감사가 넘쳐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16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걸사람은 썩어 가고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17 우리가 받는 환난은 일시적이고도 가벼운 것인데,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도 중대한 영광을 이루어 냅니다.

18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10/12 목

빌 3:10

10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알고,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

롬 6:5

5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 안에서 그분과 연결되어 자랐다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 안에서도 그분과 연결되어 자랄 것입니다.

빌 3:7, 9, 12-16

7 그러나 나에게 유익이 되었던 것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9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온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나온 의입니다.

12 내가 이미 획득하였다는 것도 아니고, 이미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나 또한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힘을 다하여 추구할 뿐입니다.

13 형제님들, 나는 아직 내가 붙잡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한 가지 일만을 합니다. 즉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향하여 힘을 다해 수고함으로써,

14 나에게 주실 상을 위하여 풋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위로 부르셨습니다.

15 그러므로 누구든지 충분히 성장한 사람들은 이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다른 어떤 일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이것도 여러분에게 계시하실 것입니다.

16 그러나 우리가 어느 단계까지 이르렀는지 간에 같은 규칙으로 행합시다.

10/13 금

빌 3:10

10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알고,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

갈 2:20

20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생명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입니다.

요 6:57

57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요 5:19-23

19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아들도 그와 같이 하기 때문입니다.

20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므로 자신이 하시는 모든 일을 아들에게 보여 주시며, 또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 주셔서 여러분을 놀라게 하실 것입니다.

21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어 생명을 주시는 것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생명을 줍니다.

22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는데,

23 이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같이 아들을 공경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 7:16-18

16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의 가르침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입니다.

17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한다면,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18 스스로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만,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그 사람은 참되며, 그 사람 속에는 불의가 없습니다.

10/14 토

마 16:24

24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십시오.

롬 6:3-4

3 그리스도 예수님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 모두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은 모르십니까?

4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장사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 16:21-23, 25-27

21 그때부터 예수님은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제삼 일에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 주시기 시작하시니,

22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한쪽으로 가서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일이 결코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며 책망하기 시작하였다.

23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아서시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너는 나를 실족하게 하는 자다. 왜냐하면 네가 생각을 하나님의 일에 두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에 두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다.

25 왜냐하면 누구든지 자기 혼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혼생명을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혼생명을 잃으면 혼생명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26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그 대가로 자기 혼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혼생명과 바꾸겠습니까?

27 왜냐하면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 안에서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인데, 그때에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롬 6:5

5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 안에서 그분과 연결되어 자랐다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 안에서도 그분과 연결되어 자랄 것입니다.

10/15 주일

벤전 2:19-25

19 누구든지 하나님에 대한 의식 때문에, 부당한 고난을 당하여도 슬픔을 참는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20 여러분이 죄를 짓다가 매를 맞고 견딘다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견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은혜입니다.

21 여러분은 이것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또한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고, 여러분이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주셨습니다.

22 그분은 죄를 범하지 않으셨고, 그분의 입에서는 속임수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23 그분은 욕을 들으셨지만 욕으로 되갚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셨지만 위협하지 않으셨으며,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계속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24 그분은 우리의 죄들을 직접 자기의 몸에 짊어지시고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들에 대하여 죽음으로써 의에 대하여 살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채찍에 맞으시어 상처 입으심으로써 여러분이 낮게 되었습니다.

25 여러분이 전에는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혼의 목자이시며 감독이신 분께로 돌아왔습니다.

벤전 3:14-15

14 그러나 의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15 오직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하여 이유를 듣고자 하는 각 사람에게 언제든지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십시오.

찬송: 631 (英) 부활 능력 아는 사람 (中:464)

교회전체 로마서 진리추구

churchinnyc.org/bible-study